

한국어 유의어사전 구축에 관한 연구*

한유석
(동신대학교)

Han, Yu-suk. (2014). A Study on Korean Thesaurus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22(1), 169-182. To construct a Korean thesaurus, the definition of a thesaurus should be declared first. However, the existing definition, 'More than two words that have different word forms but a similar meaning', alone cannot be used as a criterion of distinguishing whether a word is a synonym or not. This paper defines a synonym as 'a word that is interchangeable with another word in the same text, maintaining a similar relationship in meaning'. Especially, among synonyms, it defined 'a word that can only be interchangeable in an example sentence after presenting the example sentence' as 'a contextual synonym'. According to these definitions, a work of finding synonyms of every entry word in 『Yonsei Korean dictionary』 was done. As a result, there were some words whose synonyms were not found. If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solated words, however, nouns in word class; an alphabet, auxiliary verbs, assistant verbs, suffixes, prefixes, formative stuff, determiners, compound nouns, etc in part of speech; and foreign words in word type had a relatively high possibility of being an isolated word, that is to say not having synonyms.

주제어(Key Words): 동의어(synonym), 유의어(synonym), 문맥적 유의어(contextual synonym)

1. 머리말

유의어사전은 용어를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는 시소러스나 온톨로지와 차이가 없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시소러스, 온톨로지 연구에 영향을 입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날말의 『우리말유의어대사전』이다. 그런데 『우리말유의어대사전』은 정보량이 많아 검색에는 용이하지

* 이 논문은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만 작문이나 표현 사전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말유의어대사전』의 서문에는 「101,781개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1차 유의어 283,733개, 2차 유의어 2,001,129개가 수록된 대규모 사전이다. 따라서 한 단어의 유의어 및 반의어를 많게는 수백여 개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라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① 의미(意味) : 가치, 뜻, 의도, 의의…………
- ① 가치(價値) : 값, 뜻, 의미(意味), 무게, 쓸모, 의의(意義)…………
- ② 뜻 : 가치(價値), 계획(計劃/計畫), 내용(內容), 마음, 생각……
- ③ 의도(意圖) : 계획(計劃/計畫), 뜻, 생각, 의미(意味)…………
- ④ 의의(意義) : 가치(價値), 뜻, 의미(意味), 의도(意圖), 속뜻……

‘의미’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1차적으로 ‘가치, 뜻, 의도…’ 등의 유의어가 나오고, 또 이들 유의어를 2차적으로 검색하여 많게는 수백 개까지의 유의어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식은 관련 유의어를 총 망라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되지만, 글쓰기나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체 유의어를 찾기 위해서라면 너무 정보량이 많아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된다. 이보다는 동일 문맥상에서 대체가 가능한 정확한 유의어만을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생긴다.



〈그림1〉 『Merriam-Webster's Collegiate Thesaurus』의 첫 페이지

이와 같이 동일한 문맥에서 대체가 가능한 유의어를 제시한 연구로는 『Merriam-Webster's Collegiate Thesaurus』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영어권의 선행 연구로, 이와 같은 연구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림1>이 그것인데, 한국어 유의어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유의어사전의 완성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기술형식은 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의어사전 구축을 위해 먼저 유의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의어 사전 구축방법, 문제점, 활용방안 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의어와 유의어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한 말이고, 동의어는 의미가 같은 말을 가리킨다. 가령 ‘곧’, ‘곧바로’, ‘곧장’의 뜻이 서로 비슷하지만, 그 쓰임이 미묘하게 다르므로 이들은 서로 유의어 관계이다. 이러한 유의어는 이 외에도 얼마든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동의어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동의어를 찾는 일뿐만 아니라 동의어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곧이 정의를 내린다면 「동의어는 개념적인 의미(=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체적 의미(=사회적 의미)¹⁾, 문맥적 의미(=언어적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지침에서는 동의어를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가 같고 모든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말。」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연상적 의미(=내포적 의미)는 개인이나 언어 사용자의 계층에 따라 동일한 말에 대해서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으니, 연상적 의미는 동의어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²⁾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마 연상적인 의미를 문체적 의미, 문맥적 의미를 모두 포함시키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체적 의미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의 부분에서는 빠져 있지만 뒤이은 해설부분에서는 문체적 의미도 거론하면서 이들을 일일이 따져보아 차이가 드러나면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짚신’과 ‘짚씨기’(‘짚신’의 전라도 방언), ‘이것’과 ‘이거’(‘이것’의 준말), 빈칸과 공란(‘빈칸’으로 순화), 공업 단지와 공단(‘공업 단지’의 약어), 도쿄와 동경(‘도쿄’의 쉬운 표기), 금실과 금슬(‘금실’의 원말), 검연쩍다와 계면쩍다(검연쩍다의 변한말), 사글세와 사글

-
- 1) 문체적 의미(stylistic meaning)란 언어 표현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의미로 ‘문체적 의미’라고도 함. 예를 들어 존경어, 비속어, 은어, 고어, 방언 등에서 나타나는 의미이다.
 - 2)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란 그 단어와 관련하여 연상할 수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배경, 연령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해서 <분단국가><케이팝><김치><월드컵> 등 개인적으로 연상되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세(삭월세의 비표준어), 가지치기와 전정(가지치기의 전문어)는 모두 개념적 의미는 같으나 문체적 의미가 달라 동의어가 아니고 유의어가 되는데, 이는 올바른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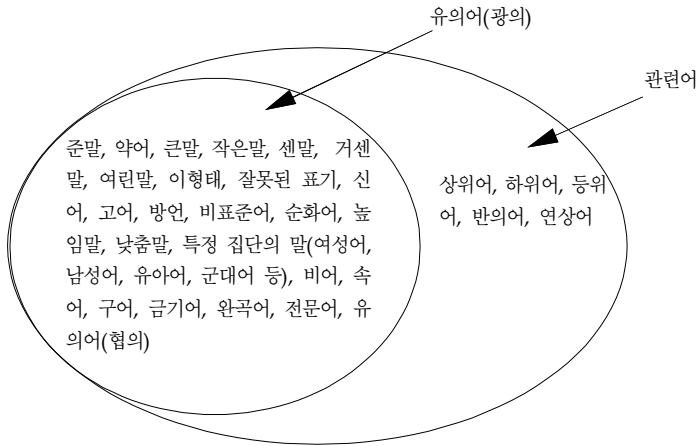
그러면 이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동의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인데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양명희(2007)에서도 말했듯이 저빈도어의 뜻풀이를 동의어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문맥에서 교체가 되는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편의상 일부 전문어나 저빈도어에 대해서는 동의어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연 언어에서 사실상 완전한 동의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 사전에서 동의어로 처리한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맥에서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동의어로 처리하지 않고 비슷한말로 처리한다. 다만 전문어와 그 쓰임을 우리가 생각해 내기 힘든 일반어(사용 빈도가 낮은 일반어나 한자어)의 경우는 동의어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결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의어를 유의어, 반의어, 고어, 방언 등과 같이 관련 어휘의 일종으로 보지 않고 뜻풀이 형식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³⁾

동의어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유의어란 무엇일까. 넓은 뜻의 유의어에는 본고에서 논하는 문맥기반의 협의의 유의어 외에도 국어사전에서 자주 표기되어 나오는 준말, 약어, 큰말, 작은말, 센말, 거센말, 여린말, 이형태, 잘못된 표기, 신어, 고어, 방언, 비표준어, 순화어, 높임말, 낮춤말, 특정 집단의 말(여성어, 남성어, 유아어, 군대어 등), 비어, 속어, 금기어, 완곡어, 전문어 등을 각각 그 상대가 되는 원말의 유의어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의미상 유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의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미상 두 개의 말이 반대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 서로 포함 또는 대등관계에 있는 상위어, 하위어, 등위어(계열어), 연상관계에 있는 연상어 등은 유의어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참고로 관련어라는 용어도 있는데, 관련어란 이들에 유의어도 포함시켜 지칭하는 말이다. 관련어와 유의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3)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 428p



〈그림2〉 유의어와 관련어

3. 유의어의 판별

흔글에서 제공하는 유의어사전에서 ‘굽다’를 검색하면, ‘주리다, 굶다, 먹지 않다, 공아하다’만 나오고, 『우리말유의어대사전』에서는 ‘굽주리다, 주리다, 배굶다, 굶다’의 4어밖에 나오지 않는다. 흔글의 유의어사전은 김광해의 『유의어반의어사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말유의어대사전』은 이를 다시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한편, ‘굽다’의 유의어를 『일한분류어휘비교』에서 찾아보면 좀더 많은 유의어를 찾을 수 있다. 『일한분류어휘비교』는 의미의 상하위 관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분류체계이어서 ‘굽다’가 세 곳에 분류되어 있다.⁴⁾ 이 세 곳의 주변어들 중에 개념적인 의미가 비슷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문맥에서라도 대체가 가능한 것만을 가려내면 ‘굽주리다, 주리다, 배굶다, 굶다², 굶리다², 손가락을 빨다, 단식하다, 금식하다, 거르다²’라는 유의어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유의어를 검색어로 삼아 다시 2차 검색을 하면 ‘거르다²’의 항목에서 ‘건너뛰다, 빠뜨리다, 빼먹다, 빠지다’라는 유의어를 추가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출해 낸 것이 아래에 제시한 a이다. ‘빠뜨리다’, ‘빠지다’ 등도 ‘굽다’의 유의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b와 c 같은 예문에서는 충분히 유의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굽다’의 유의어가 모두 찾아진 것일까.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의어는 얼마든 나올 수 있다. 또한 a는 모두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

4) ‘굽다’는 <2.3003 기갈·취기·피로·수면 등>, <2.3331 식생활>, <2.5710 생리>의 세 항목에 분류되어 있다.

및 부표제어를 대상으로 찾은 것이어서 유의어의 대상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까지 확대하면, 사용빈도는 적지만 ‘절식하다, 절명하다, 식금하다, 궁아하다, 조불식석불식하다’와 같은 유의어를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편집방침에 따라 방언, 북한어, 비속어, 고어 등도 유의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용어 하나만에 대해 유의어를 총망라해서 수집하는 일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를 한 나라의 언어 전체에 대해서 잘된 유의어 어휘집을 구축한다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의미상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문장 안에서 대체가 가능한 어를 유의어(synonym)라고 정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문을 제시한 뒤 그 예문 속에서만 대체가 가능한 유의어들은 문맥적 유의어(contextual synonym)라고 부르기로 한다.

‘끓다’의 유의어

a. <끓주리다, 주리다, 배끓다, 끓다2, 끓리다2, 손가락을 빨다, 단식하다, 금식하다, 거르다2, 건너뛰다, 빠뜨리다, 빼먹다, 빠지다(이상은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 절식하다, 절명하다, 식금하다, 궁아하다, 조불식석불식하다(이상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끓다’의 문맥적 유의어

- b. 나는 바쁜 일정 탓에 끼니를 끓을 때가 많았다. <거르다, 건너뛰다, 빠뜨리다, 빼먹다>
- c. 이번 판은 끓고 다음 판에 끼겠다.<빠지다>
- d.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만은 끓게 할 수 없다. <끓주리다, 주리다, 배끓다, 끓다, 끓리다2, 손가락을 빨다>
- e. 꿈은 겨우내 끓은 상태였다.<끓주리다, 주리다, 배끓다, 끓다2>
- e'. 꿈은 겨우내 허기진 상태였다.
- f. 한 달이나 여자를 끓었다.<유의어 없음>

보통 유의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것을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가 유사한 것들은 어느 하나 이상의 문장 안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흔히 ‘끓기다’를 ‘끓다’의 유의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b,c,e,f의 문에서 ‘끓다’를 ‘끓기다’로 바꾸면 전체 의미가 달라지므로 유의어가 될 수 없다.

또한, ‘끓다’와 ‘허기지다’와 ‘끓주리다’의 관계에서 ‘끓주리다’는 예문 d나 e에서처럼 ‘끓다’와 서로 대체가 가능한 유의어 관계에 있지만, ‘허기지다’는 그 어떤 ‘끓다’의 예문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어가 아니다. 여기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거나, 대체를 하면 의미가 크게 바뀐다는 뜻이다.

단, e와 e'에서처럼 문맥상 대체가 가능하지만 뜻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두 용어간의 의미 정의를 비교함으로써 유의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굶다'의 중심적인 의미는 <끼니를 거르다>이고, '허기지다'의 중심적인 의미는 <몹시 굶어 기운이 빠지다>로 나와 있다. 이를 보면 '굶다'는 사람이나 동물의 생식 활동을 나타내는 동작동사이고, '허기지다'는 그러한 생식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몸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유의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굶다'의 의미에는 파생적으로 <(속되게) 성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f와 같은 예문에 대체할 수 있는 '굶다'의 유의어는 찾기가 어렵다. 이처럼 유의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4. 유의어사전의 구축

유의어사전 구축은 『연세한국어사전』(1998년, 두산동아)의 표제어 및 부표제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가 49,569어이고, 부표제어가 2,950어이었던 때문에 실제 작업의 대상이 된 것은, 이들 표제어와 부표제어에 추가어를 합한 숫자 52,644어에서 문법적인 기능어(조사, 어미 등) 1,717어를 제외한 수치인 50,927어이었다. 다의어는 의미항 하나하나에 문맥적 유의어를 찾았으나 편집 과정에서 이들을 다시 하나의 표제어 밑에 처리했다. 실제 작업 대상으로 삼은 개별어수는 37,120어(전체어수는 49,743어)로 전체 50,927어(전체어수는 66,855어) 중에 13,807어(전체어수는 17,112어)는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를 찾지 못했다.⁶⁾

유의어는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내에서 찾아 쉬운 말로 한정시켰다. 또한 본 연구의 표제어는 『연세한국어사전』의 표기 형식(표제어의 어깨번호 및 의미항의 번호 형식)과 일치시켜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호 확대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
- 5) 『연세한국어사전』에서 표제어나 부표제어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가령 '(남의) 장단에 춤추다'와 같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들을 작업대상에 추가어로 포함시켰다.
 - 6) 37,120어는 개별어수이고 49,743어는 다의어를 별개 어수로 계수한 것이다. 가령 '가까이'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의미항에 따라 유의어집합이 다르다. 이를 한 개로 계산하면 개별어수, 두 개로 계산하면 전체어수가 된다.

단, 체언의 경우 다음처럼 유의어에 별표를 붙인 것이 있는데, 이들은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이거나(g) 작업자 내성 판단으로 생각해 낸 말들이다.(h,i) 특히 예문 h,i의 경우는 유의어는 아니지만 본서가 국어 작문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유의어를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간결한 뜻풀이 형식의 어구로 유의어를 대체한 것들이다.

- g. 총끝의 가늌자 위로 겨냥해 보았다. <조척(照尺)*>
- h. 이웃을 돕는 건 사람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인간다운*, 사람의*>
- i. 비가 조금만 내려도, 애써 설치해 놓았던 가교가 떠내려가곤 했다. <임시 다리*>

유의어를 찾는 방법은 기 구축된 한국어시소러스(『일한분류어휘비교』(한국문화사, 2010년)의 한국어 부분)를 주로 이용했다.

본 연구는 특히 문맥적 유의어 자료집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맥적 유의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짧은 예문을 제시하고, 그 예문 속에서 대체가 가능한 유의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일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까이¹** 명 1. 버스는 강기슭 가까이까지 가서야 겨우 멈췄다. <근처, 근방, 주위, 주변², 부근, 언저리, 인근, 둘레, 이웃> 2. 수수료의 절반 가까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량(假量), 만치¹, 만큼¹, -쯤, 정도¹, 전후¹, 내외¹, 안팎>

‘가까이¹’(숫자는 『연세한국어사전』의 어께번호)의 경우는 두 개의 의미항을 갖는 다의어인데, 먼저 의미항 1에 제시된 예문 속에서 ‘가까이¹’에 사전적인 의미의 변경없이 대체가 가능한 문맥적 유의어는 아래에서 보듯이 <근처, 근방...>이고, 의미항 2에 대체가 가능한 문맥적 유의어는 <가량, 만치1...>이다. 이렇게 제시된 문맥적 유의어에는 ‘근처’나 ‘가량’처럼 표제어에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일수록 가급적 앞 쪽으로, ‘이웃’, ‘안팎’처럼 표제어에 대체하기가 힘든 유의어일수록 뒷 쪽으로 배치했다.7)

이와 같은 형식으로 37,000여어의 문맥적 유의어 자료집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 <그림3>이다.

5. 유의어가 없는 고립어

‘죽다’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나오는 표제어 안에서만도 유의어가 일추 36개나 존재한

7) 단, 이와 같은 배치 순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유의어간의 의미의 친소관계를 배열 순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8) 반면, ‘세탁기’는 어떤 문장에서도 대체 가능한 유의어를 찾을 수 없다.

가국

<p>가¹ (가) 건너편 가에 앉아 불장난을 하다. (가장 자리, 주위, 주변², 테두리, 둘레 언저리, 전¹)</p> <p>—가¹⁰ (價) (원미) 최고가, 상한가. <값, -치¹, 금², 액⁴></p> <p>가² (可) (원) 주어진 문제로서는 가, 부의 두 방향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진성, 잔혹, 지지², 승낙></p> <p>—가⁵ (家) (원미) 케네디가. <가문, 집안 일가, 일문¹, 문중, 일족></p> <p>—가⁶ (家) (원미) 예술가. <-인⁶, -자⁶, -이⁶, -장이, -쟁이, 곧¹, 곧², -집이></p> <p>—가⁷ (哥) (원미) 감가. <싸, 남², 군¹, 양¹, 양², 공³></p> <p>가감 (加減) (원) 반은 농담인 그의 말을 가감없이 받아들였다. <증감, 첨삭, 정정¹></p> <p>가계 (원) 가계에는 물건들이 꽂 차있었다. <가겟집, 점포, 상점, 전방², 점방, 상사³, 상회, 전사³></p> <p>가겟집 (원) ⇨가계</p> <p>가격¹ (價格) (원) 시중 가격보다 15퍼센트 정도 싼 가격입니다. <값, 가액, 물가², 시가¹, 시가², 시가³, 시가⁴></p> <p>가격² (加擊) (원) 가를 발끝에 모으고 가격을 한다. <타격, 일격, 강타, 난타, 연타, 타박², 구타, 난장²(亂杖)(몸의 이두대나 띠를), 주먹질></p> <p>가격표¹ (價格表) (원) 식당 벽에는 여러 가지 가격표가 붙어있었다. <차림표, 값표¹></p> <p>가격표² (價格票) (원) 옷소매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는 모두 소스리치게 놀랐다. <태그(tag)¹></p> <p>가결 (可決) (원) 예산안을 가결하다. <의결, 재결, 판결, 결정¹></p> <p>가계¹ (家計) (원) 가계를 꾸려나간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살림살이, 살림, 생계, 안살림></p> <p>가계² (家系) (원) 어머니의 가계는 남인 민문 집안의 직계이다. <집안, 계보, 신원, 출신, 지체¹,</p>	<p>핏줄, 핏줄기, 피¹, 혈통, 혈맥, 씨¹, 법통, 가통, 대통⁴(大統)></p> <p>가계부 (家計簿) (원) 매일 가계부를 쓰다. <장부¹, 기부(記簿)></p> <p>가계비 (家計費) (원) 농업 소득만으로는 가계비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생계비, 생활비, 살림비용></p> <p>가곡 (歌曲) (원) 저는 가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악곡, 창곡, 명곡></p> <p>가공¹ (加工) (원) 제품의 가공을 섬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성, 회공¹, 인조, 인공, 수공, 공작¹></p> <p>가공² (架空) (원) 그것은 소설이 가공의 세계임을 의미한다. <비현실, 허구, 가설¹, 거짓></p> <p>가관 (可觀) (원) ㉠ 해 뜰 무렵 햇빛이 굴 속을 비출 때의 가관은 찬탄할 수밖에 없다. <장관¹, 미관, 절경, 진경¹(眞景), 일경⁴(一景), 진풍경, 진경¹(珍景)> ㉡ 인상을 쓰며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이 가관이다. <골물건, 장관¹(班觀), 점입가경, 목물인건></p> <p>가교 (架橋) (원) 통일의 가교를 놓는 데 기여하다. 통일의 가교 역할. <다리¹, 중개, 매개, 중매, 일선, 주선, 중재></p> <p>가구¹ (家具) (원) 우리 집에 가구는 거의 없다. <가자¹, 가재 도구, 살림 도구, 비품, 집기, 세간¹, 살림살이, 짐품></p> <p>가구² (家口) (원) [I] 도시 가구의 저축에 대한 실태 <가정¹, 집¹, 가호², 세대¹, 호구²(戶口)> [II] 수도권에 터지는 바람에 약 2백 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세대¹, 호¹, 가호², 집¹, 채¹></p> <p>가구점 (家具店) (원) 발이 아프도록 가구점을 돌아다녔어요. <가구상¹></p> <p>가구주 (家口主) (원) 잠깐의 가구주가 되었다. <가구의 법적인 대표자¹, 세대주, 호주, 가정¹, 가부장></p> <p>가극 (歌劇) (원) 모짜르트의 가극. <뮤지컬, 오페라></p>
---	--

<그림3> 한국어 작문을 위한 유의어자료집 구축 화면

8) 돌아가시다, 서거하다, 별세하다, 사망하다, 임종하다, 작고하다, 생(삶)을 마감하다, 가다¹, 사라지다, 유명을 달리하다, 끌로 가다, 꿰지다, 잘못되다, 밥술/밥 숟가락(을) 놓다, 끊다, 끊기다, 끊어지다, 꺼지다¹, 숨지다, 넘어가다, 숨(을), 거두다, 목숨(을) 거두다, 잠들다, 눈을 감다, 왕생하다, 타계하다, 세상을 뜨다, 뜨다³, 세상을 떠나다/하직하다, 세상을 버리다, 붕어하다, 승하하다, 입적하다¹, 열반하다, 앞서가다, 앞세우다

이 절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문맥적 유의어 자료집을 구축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가 없거나 찾기 힘들었던 어구들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유의어 찾기가 힘들었던(또는 존재하지 않는) 어구들을 본고에서는 편의상 ‘고립어’라고 부르기로 한다.⁹⁾

유의어가 존재하지 않는 고립어들은 <표1>의 비율에서처럼 용언류(19%)나, 상 및 기타류(15%)에서 보다는 체언류(32%)에서 많았다.

<표1> 류별 고립어의 비율

	고립어(a)	전체어(b)	비율(a/b×100%)
체언류	11950	37403	32
용언류	3626	18936	19
상 및 기타류	1536	10516	15
전체	17,112	66,855	26

다음으로 명사류에서는 <표2>와 같이 전체어 중에 고립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모(100%), 접미사(65%), 형성소(58%), ‘-的’ 파생명사(57%), 합성명사(47%), 수사(44%), 관용구(38%), 의존명사(37%)의 순으로 많았고, 이들은 체언류 전체 평균비율(32%)보다 높은 수치이었다. 이는 고립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유의어를 찾기가 힘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대명사의 경우는 고립어가 14%밖에 되지 않았다.

<표2> 체언류의 고립어 비율

품사	고립어(a)	전체어(b)	비율(a/b×100%)
자모	30	30	100
접미사	242	372	65
형성소	74	127	58
‘-的’ 파생명사	77	134	57
합성명사	507	1,088	47
수사	41	94	44
관용구	29	77	38
의존명사	190	515	37
명사	10,743	34,847	31
대명사	17	119	14
전체	11950	37,403	32

용언류에서는 <표3>에서처럼 동사성 접미사(100%), 조동사(100%), 보조동사(59%), 관

9) 언어유형학적인 측면에서 ‘고립어’라는 용어가 이미 통용하고 있어 혼동되기 쉬우나, 본고에서는 ‘유의어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용구(30%)에서 고립어의 비율이 높았다.

〈표3〉 용언류의 고립어 비율

품사	고립어(a)	전체어(b)	백분율(a/b×100%)
접미사(동사성)	4	4	100
조동사	5	5	100
보조동사	20	34	59
관용구	513	1711	30
동사	3084	17182	18
전체	3626	18936	19

상 및 기타류에서는 형용사성 접미사(87%), 접두사(76%), 형성소(55%), 관형사(55%), 보조형용사(33%) 등에서 고립어의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형용사(5%), 부사(7%), 감탄사(10%)에서는 유의어가 존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표4>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다.

〈표4〉 상 및 기타류의 고립어 비율

품사	고립어(a)	전체어(b)	백분율(a/b×100%)
접미사(형용사성)	13	15	87
접두사	159	209	76
관형사	562	1,016	55
형성소	48	88	55
보조형용사	3	9	33
기타 ¹⁰⁾	99	311	31
관용구	146	719	20
감탄사	18	186	10
부사	248	3,536	7
형용사	240	4,427	5
전체	1536	10,516	15

다음은 어종별로 유의어의 존재여부를 비교한 것인데, <표5>에서 보듯이, 외래어(32%), 한자어(29%), 혼종어(24%), 고유어(19%)의 순으로 고립어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0) '기타'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품사가 명사나 동사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특성상 「상 및 기타류」에 분류한 것들이다.

〈표5〉 어종별 고립어의 비율

어종	고립어(a)	전체어(b)	백분율(a/b×100%)
외래어	547	1,717	32
한자어	11,515	39,356	29
혼종어	287	1,188	24
고유어	4,773	24,594	19
전체	17,122	66,855	26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의어를 찾기 힘든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유의어를 찾기가 힘들다. ‘가야금, 가락지, 가죽옷, 감나무, 가보…’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둘째, 학술어나 직업어와 같은 전문용어일수록 유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歌辭), 가부장제, 가례(家禮)…’ 등이 그 예이다.

셋째, 파생명사나 합성어들은 유의어를 찾기 힘들다. 가령, 파생명사는 ‘가공업, 간빙기, 가정교사, 가족법’과 같은 것이고, 합성명사는 ‘가격 변동, 가변 차선, 가전 제품, 가정 교육’과 같은 것이다.

넷째, ‘약방의 감초, 서울 물을 먹다’와 같은 관용구, 각골난망, 결초보은’과 같은 고사성어, ‘오스카상에 빛나는 영화’와 같은 연어들은 유의어 찾기가 힘들다. 또한 당연한 일이겠지만,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와 같은 관용구에서 그 구성소인 ‘간담’에 대한 대체 유의어는 찾기가 힘들다.

다섯째, ‘강경 일변도’와 같은 형성소나, ‘간이식 부엌’과 같은 관형사성 명사나 ‘여러’ 등과 같은 관형사는 유의어를 찾기가 힘들다.

여섯째, ‘결주, 귀사, 귀부인’과 같은 접두사나 ‘광복동 2가, 유행가’와 같은 접미사는 유의어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일곱째, ‘-의’ 형태의 관형사나 명사는 대체 유의어를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감정적1, 감정적2’와 같은 것들이다.

여덟째, ‘ㄱ, ㄲ, ㄴ’과 같은 자모나, ‘오다, 버리다’와 같은 보조동사는 유의어를 찾을 수 없다.

6. 유의어사전의 활용

다음은 본 연구와 같은 유의어사전이 구축되었을 때 어떤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 정리한 것이다.

첫째, 유의어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의 표준과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의 질을 함양할 것이다. 우리말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단조로운 반복을 피하고 싶을 때, 또는 초중등 학생의 어휘력 향상이나 국어작문지도, 단계별 어휘 학습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컴퓨터로 검색과 가공이 가능한 유의어사전은 음성, 의미, 문법, 어휘, 문체 방언연구 등 언어학 각 분야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시소러스(은톨로지) 연구가 그렇듯이 문헌정보학,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 인문학 제 분야 외에도 컴퓨터정보학, 정보통신학 등 타 학문과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대역사전(영한, 일한, 불한 등의 대역사전)의 한국어 대응어 수정작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한대역사전에서 ‘直ちに’는 ‘곧. 즉시. 당장. 바로, 직접’의 총 5개의 대응어를 올리고 있으나, 유의어사전을 통해서 보면 이외에도 ‘곧바로, 곧장, 금방², 금시, 금세², 고대², 쉬², 쉬이, 막바로, 이내², 그대로, 그만(=그대로 곧), 그 길로, 냉큼, 단박, 담박, 단박에, 단번에, 하루바빠, 하루빨리, 하루속히, 즉각, 땀바람에, 득달같이’도 충분히 대응어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이들 중 어떠한 용어를 선택하고, 그 배열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어사전편찬에 있어서의 해석(=의미 정의) 작업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어떤 용어에 대해 뜻풀이 해석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어와 가장 가까운 유의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유의어간의 미세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유의어사전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와 같은 문맥적 유의어 구축 자료는 선별된 유의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의어간의 변별적 특징을 기술하는 의미변별 사전의 기본 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7. 마무리

‘끓기다’, ‘허기지다’는 ‘끓다’의 유의어가 아니다. ‘끓다’의 예문에서 ‘끓다’와 대체하면 비문이 되거나 뜻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래 유의어에 대한 정의는 소극적이었으나 본고에서는 유의어에 대한 정의를 「의미상 서로 유사하고 일정 문장 안에서 대체가 가능할 말」이라고 명시를 하였다. 의미상 어느 정도까지 유사한 것을 유의어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서는 그 경계선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유의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어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 고립어의 성격을 보면, 유별로는 체언류가, 품사 또는 형식별로는 자모, 조동사, 보조동사, 접미사, 접두사, 형성소, 관형사, 합성명사 등이, 어종별로는 외래어가 고립어가 될 수 있는 비율, 즉 유의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고문헌

- 國立國語研究所. (2004). 分類語彙表(增補改定版). 東京: 大日本図書.
- 김광해. (1993). *유의어·반의어 사전(개정판)*. 서울: 한샘출판.
- 김광해. (1993). 올림말의 관련 어휘 처리. *새국어생활*, 3(4), 국립국어연구원, 189-209
- 양명희. (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2, 165-18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1998).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유현경·남길임. (2009). *한국어사전 편찬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한유석. (2010). *일한 분류어휘비교*. 서울: 한국문화사.
- 한유석·설근수. (2004). *한국어 시소러스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홍종선·최호철·한정한·최경봉·김양진·도원영·이상혁. (2009). *국어사전학개론*. 서울: 제이앤씨.

한유석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관광일본어학과

전화 : 061-330-3641

이메일: yusukhan@hanmail.net

Received on December 31,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28, 2014

Accepted on March 7, 2014